

「병원회보」 機關紙 발행 승인

定期理事会 理事補選도 함께

大韓病院協會는 구랍 27일 오후 4시 會議室에서 85년도 제1차 전국 市道支部長회의 및 定期理事會를 열고 지난 5월 정기총회 이후 12월까지의 각분야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한편 協會 기관지인 주간 「病院會報」의 발행과 理事補選 등을 승인했다.

총 50명의 이사 및 감사 중 40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白樂院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病院界에는 85년에 이어 85년에도 더욱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협회를 구심점으로 전회원이 단결하여 병원계 공동과제의 해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하고 『특히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본인 부담금 가중에 따른 보상대책 및 정신보건법안의 문제조항 개선 등을 주안점으로 협회가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들은 이날 회의는 병원수련규정 가운데 지원3과 자문의 인정기간 연장을 검토했으며, 회비 및 수련심사비 미납병원 납부대책을 협의했다. 토의사항에 들어가 기관지 「병원회보」의 발행을 승인하는 한편 유현원(성베드루 병원장) 하인호(전남의대 병원장), 이현

치 이사(국방부 의무관리관) 등 3인의 이사를 보선했다.

任員陣, 이웃성금 전달

大韓病院協會 白樂院 회장 등 임원진은 구랍 21일 KBS가 벌인 「이웃사랑 성금 모금」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2백만원을 기탁했다.

6차 經社개발위원 임명

大韓病院協會는 구랍 27일 제 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보건의료부문 연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장: 白樂院(인제대학부속 서울백병원장) △위원: 李仁洙(순천향대학원장), 朴聖德(새한병원장) △간사: 河湜煜(병협 사무총장)

「醫療法개정연구위」발족

大韓病院協會는 구랍 27일 의료법개정 연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장: 張慶植(국립의료원장) △위원: 朴聖德(새한병원장), 劉賢源(성베드루병원장),

金光泰(대림성모병원장), 鄭基善(서울대병원부설 병원연구소 자문연구위원), 朴承緒(서울변호사회 회장) △간사: 河湜煜(병협 사무총장)

의료보호酬價 일부 개정

의료보호환자 진료수가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2차진료기관의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수가의 83% 수준이었으나 85%로, 급식비는 1일 1천 8백원에서 1천 9백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성병과 정신질환 등 특수 질환에 대한 수가기준에서도 약간씩 인상됐다.

이밖에 의료보호진료비의 기금 부담 및 대불기준에서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료부조대상자로 한다)에 대한 진료비용중 제1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별 구분없이 그 비용의 1/3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부조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 ▲서울 특별시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40/100 ▲위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60/100과 같이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

속적 복막관류술에 의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별 구분없이 6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한편 정부가 올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책정한 예산은 7백34억원으로 지난해 5백88억원에 비해 24.8%가 증가했다.

보호진료비 지급 개선

보사부는 구랍 21일 의료보호진료비 청구 및 지급개선 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86년 1월 1일 부터 의료기관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입원(2차)진료를 행한 경우 진료비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1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접 심사를 의뢰토록 했다. 종전에는 진료비 청구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해당 시·군에서 의료관리공단에 심사를 위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복잡과 지급에 장시간을 소요했다.

'86 專攻医 확보 완료

전국 수련병원은 올해 專攻医로 인턴 1천8백1명, 레지던트 1천5백34명을 각각 확보했다. 이 같은 확보수는 정원에 비해 인턴 98.0%, 레지던트 91.8%의 비율이다.

한편 전국 92개 수련병원은 구



◇ 의료계 합동 신년교례회에는 많은 病院界 인사가 참석했다.

랍 4~5일(전기), 23~24일(후기)에 각각 전공의 모집시험을 치렀다.

医療界신년교례회 盛況

大韓病院協會와 医協 등 의료계 단체가 주최하는 「의료계 합동 신년 교례회」가 1월4일 오전 11시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있었다.

이날 교례회에는 白樂院 병협 회장 등 전국의 病院界 인사가 다수 참석, 의료계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IHF 연수회 캐나다서

국제병원연맹(IHF)은 제19차 연수회를 오는 6월15일 부터 29

일까지 15일간 캐나다에서 갖기로 했다.

국제병원연맹과 캐나다 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연수회는 캐나다의 크로스암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에드몬트병원 등 22개 기관에서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1백50명의 병원관계자가 참가 예정인 이번 연수회에 국내 참가 희망자는 오는 2월1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기획관리실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참가신청비 1백25파운드와 연수비(항공료 제외) 2천6백캐나다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백88만 3천원이 된다.

医療保險 정액제 실시

올해부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Handwritten notes at the top of the page include "2000" and "5000" with some scribbles.



KHA 뉴스

이 외래진료의 경우 정액제화 됐다.

병원급의 의료보험 진찰료 본인의 기본부담은 다음표와 같다.

구분	병 원	종합 병원
초진	초진료+잔여진료비의 50%	초진료+잔여진료비의 55%
재진	재진료+잔여진료비의 50%	재진료+잔여진료비의 55%

환자 측의 경우 초진시 예를 들면 병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원 일 때 중전에는 50%에 해당하는 5천원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이번 정액제에서 진찰료 2천5백30원과 잔여 진료비 7천4백70원의 50%인 3천7백35원을 합친 총 6천2백60원(10원 미만 절사)을 부담하게 된다. 종합병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원인 경우 중전에는 역시 총진료비의 50%인 5천원을 부담하였으나 정액제에서는 진찰료 2천5백30원과 잔여진료비 7천4백70원의 55%인 4천1백8원을 합친 총 6천6백30원을 부담하게 된다.

病協, 유자녀원 위문

大韓病院協會는 구랍 23일 자매결연기관인 군경유자녀원을 방문, 고아들을 위한 식탁 세트를 전달하고 이들을 위문했다. 이날 위문에는 河湜[○]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大邱파티마 표창받아

대구 파티마병원은 구랍 31일



◇ 河湜[○]병원협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보사부장관의 85년도 사회정화운동 단체표창을 받았다. 개인표창은 서울대병원 총무부에 근무하는 이종화씨가 받았다.

河仁鎬 병원장 취임

전남의대 부속병원은 지난 11월28일 신임 河仁鎬병원장(제20대)의 취임식을 가졌다.

새병원장에 柳乙基씨

서울위생병원은 지난 10월 1일자로 柳乙基씨를 새병원장으로 선임했다.

자율지도 협조 요청

医療保險管理公團은 일부 요

양취급기관이 醫療保險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 할 때 보험급여 대상인 약품대, 재료대를 징수하고 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처치료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을 지적,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인 지도와 협조를 病院協會에 요망해 왔다.

3대 朴柱秉회장 별세

大韓病院協會 제3대 회장을 역임한 朴柱秉박사가 구랍 16일 오후 4시45분 미국 로스앤젤스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故 朴柱秉박사는 病協회장을 비롯 보사부장관, 醫協회장 등을 역임했다.